



## 民間主導型經濟와 技術革新

80년에 심각한 불황을 경험한 한국경제가 새해에 접어들면서 두가지 큰 과제를 제기해 놓고있다. 그 하나는 종래의 정부주도형경제운영에서 民間主導型經濟에로의 전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술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을 주축으로 하는 國際競爭力停滯의 打開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경제운영기술의 典型的인 革新을 요청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한국경제의 국제분업적인 자립을 이룩할 한국기업의 경영 및 생산기술의 新基軸的인 革新(J.A.Schumpeter)이 촉구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80년대에 이룩해야할 한국경제의 민간주도적인 산업사회 지향과 수평분업주축의 국제화의 발전은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技術에 대한 시야의 확대와 그 철학적인 가치관의 재정립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60년대 한국고도산업사회의 지향을 전제로 한 技術의 靚座는 여태까지 과학 내지는 생산이라는 좁은 면에서 탈피하여 전체경제사회의 발전이라는 넓은 연관하여 두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한다. 기술의 본질이란 기술철학적으로 규정하면 인간주체와 환경과의 조화를 배개하는 行動의 形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기술은 인간의 의욕, 목적과 같은 주관적, 정신적인 요소와 또 한편으로는 도구, 기계와 같은 객관적, 수단적인 요소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기술개념의 확대 해석에 비추어 볼때 과거 한국의 경제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에 대한 시야는 그 수단면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해방된지 반세기가 가까와 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는 정치기술이 정착을 보지 못한채 혼란을 거듭해 왔음은 扞擧하고라도 경제개발계획방식에 의한 위로부터의 공업화의 강행은 정부주도적인 경제운영기술의 경직성이 경제체질의 경직성까지 초래하게 되었고 60년대 이후 밀어닥친 서구선진국적인 경영기술과 일본의 제벌형성적인 전근대적인 경영 이념의 복합은 오늘날 마침내 기업의 외형적인 비대경영능율의 취약

성을 결과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심각하게 논의될 정도로 기업과 사회가 서로 유리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기업이 외자도입과 함께 받아 드린 서구 선진대기업의 대량생산방식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생산기술에 기초한 독점적인 대규모기업의 경영기술에 일방적으로 얽매인 나머지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사회가 이를 수용, 소화하지 못한 일종의 선진기술의 질곡화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점을 고려할때 앞으로의 민간주도적인 경제운영을 뒷받침할 기술가치관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수행을 수반한 장기이윤추구 지향의 기업가정신 내지는 경영이념이 유효한 경쟁질서를 보장할 시장기구를 바탕으로 하여 산업사회의 다원적인 욕구라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갈수 있는 보다 폭넓은 것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한다.

다음 앞으로 전개될 한국산업사회의 주도력으로서의 한국기업가의 혁신기능(Innovation)이 경영 기술적인 차원에서 구체화 되어야할 것이다. 주지하다싶이 슉피터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엔진으로서 기업가의 혁신기능을 제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활동은 1) 새로운 생산기술의 채용과 활용 2) 신시장의 개척 3) 새자원의 개발 5) 경영 및 생산조직의 혁신적인 개선등을 들고 있다. 말하자면 슉피터의 기술 혁신의 개념은 자연과학적인 생산기술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순환케도나 재생산구조의 종합적이고 질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앞에서 말한 기술철학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기술의 주관적 정신적인 요소가 객관적 수단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면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경제 운영을 과거의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야겠다는 것은 한국기업의 혁신기능으로서의 넓은 의미의 기술기능이 경직화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과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 지난해의 불황때 집중적으로 노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혁신기능을 경영 기술적인 차원에서 회복

## 處方은 技術의 獨自性 維持 發展서 찾아야

裴 翰 慶

<서울女大教授·經博>

하기 위하여는 우선 다음 두가지 과제를 기업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의 혁신기능을 재무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할 기반을 시급히 조성해야 할 것이다. 기업을 인체에 비유한다면 경영이념은 머리에 해당하고 시설 노동력 그리고 생산기술은 골격과 각종 장기에 비유되며 재무구조는 혈액순환과 같다고 할 것이다.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거나 적응하기 위하여 이념을 개혁이고 시설, 노동력 그리고 생산기술을 개척하고자 하더라도 이의 가능성 여부는 재무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신체가 강대하다 하더라도 그 신체의 유지가 지속적인 수혈에 의하여 지탱된다면 그 신체의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듯이 절대적인 타인자본의 의존 기업체질은 자율적인 기업혁신은 커녕 내외환경의 급변이 곧 기업활동의 정지를 몰고온다. 이렇게 볼때 한국기업경영에 있어 기업재무의 파악이 기술혁신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자원적인 조건에 있어 기술혁신의 기능이 판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내적인 면에 있어 우리나라 업기의 노동자원의 확보 활용에 대한 기술적인 적응력이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70년대 후반기의 기능인력에 대한 쟁탈전이 오늘날 상대적인 임금원가압박을 몰고온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오늘날 스택그플레이션의 한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곧 한국의 기업은 노동력이라는 엄연한 경영의 대외적인 환경이 과거의 만성적인 실업의 타성에 젖어 경영목적에 종속적으로 봉사만 하는 환경으로 착각하여 이에 적응할 기술적인 행동의 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反證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당면 민간주도형경제에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勞使協議를 위한 새로운 경영기술체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있기도 하다. 한편 밖으로는 석유를 위시한 諸天然資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한국기업의 성장을 항상 위협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기술혁신

의 관점을 단순 투입, 산출의 차액의 극대화라는 無制限資源供給의인 經營方式을 탈피하여 제한된 자원조건하에 생산의 효율화를 어떻게 달성하는가 하는 이른바 생산의 가치·목표정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기업의 혁신기능정립을 위한 경영기술 수립을 위한 접근방향은 기업은 결국 하나의 광범위한 기술적 분업과 협동의 체계이며 이 기술협동체는 한국산업사회형성의 선도력을 발휘해야하는 또다른 사회경제적인 적응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의 생산기술체계에 있어 주체성의 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후 선진자본주의 공업국이 줄기찬 성장을 누려온 것은 고도의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한 생산기술의 거대한 축적에 그 원동력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70년 중반을 고비로하여 국제경제 전반에 확산, 심화되고 있는 스택그플레이션적인 경기침체는 생산기술혁신의 장애가 저생산성을 초래한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탈출하고자하는 선진공업국은 기술이전의 기피 내지 중단을 통한 국제경쟁에 있어 우위를 지키려고 기를 쓰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기술에 있어서의 자국보호주의와 南北隔差의 정책적인 유도에 급무 한국경제가 휘말려들지 않는 길은 기술개발의 주체성을 발휘하여 생산기술조건면서 독자성을 유지·발전시키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생산기술체계는 과거자본도입과 함께 도입된 도입기술에서 탈피하고 있지 못하며 그나마도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의 원인은 한마디로 요약하여 한국기업의 생산기술관은 그 경제적인 괴실에만 치중하였지 그것이 기업발전이나 경제성장의 골격이 된다는 점을경시 한데서 온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기업은 생산기술의 도입이나 자체개발에 있어서 그것은 기업의 골격을 구축하고 보강한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질적인 가치관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